

# 원가족 분화경험이 기혼남녀의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과 자녀에 대한 태도를 매개로\*

The Influence of Family-of-Origin Differentiation on Marital Intimacy:  
Mediating Effects of Identity and Attitudes toward Children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팀  
팀 장 박 봉 순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 수 김 영 희

Cheongju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Team leader : Bong Sun Pak

Department of Child-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Yeong Hee Kim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amily-of-origin differentiation, ego identity, and attitudes toward children on marital intimacy among married men and women.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61 married men and 274 married women whose marital period were less than 14 years, and whose first child was less than 12 years old and who were living in Chungbuk Provinc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s, t-test, F-test with Tukey test for post-hoc test, Cronbach  $\alpha$  for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Pearson's correlation using the SPSS program(12.0 version). The model test was done with analysis of correlational matrix by the AMOS 5.0 package using a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Family of origin differentiation, ego identity, and

**Corresponding Author** : Yeong Hee Kim, Department of Child-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2 Gaeshin-dong, Heungduk-gu, Cheongju-shi, Chungbuk, 361-763, Korea Tel: +82-43-261-2793 Fax: +82-43-260-2793  
E-mail: enjoy@chungbuk.ac.kr

\*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 논문의 일부임.

\* 본 논문은 2010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0)

attitude toward children had different effects on marital intimacy according to gender. Also, ego identity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men's marital intimacy whereas attitude was the strongest for women's marital intimacy.

**주제어(Key Words)** : 원가족 분화경험(family-of-origin differentiation), 자아정체감(ego identity), 자녀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 children), 부부친밀감(marital intimacy)

## I. 서론

### 1. 이론적 배경

성공적인 부부관계에 기여하는 요소는 많이 있지만 그 중 부부친밀감은 서로를 돌봐주고 존중하면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부부관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강조되어 오고 있다(김영희, 최규련, 홍숙자, 2005). 부부가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한 이후 자녀가 아동기에 이르는 가족확대기에는 지금까지의 부부관계에 더하여 새롭게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며, 가족역할과 경계가 재설정되는 시기이다. 즉, 가족구성원이 증가하는 확대기의 부부들은 자녀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자신의 부부관계도 잘 유지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이 시기는 자녀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이로 인해 부부간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기 때문에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간의 상호작용은 다른 시기에 비해 감소하게 된다(정현숙, 1997; 정현숙, 서동인, 1994). 이처럼 확대기 부부관계에서 부부친밀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제로 결혼만족도의 향상은 물론 궁극적으로 결혼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Napier(1988)는 이러한 부부친밀감이 각 배우자의 원가족 경험에 기초하여 발달된다고 주장하면서 원가족 경험과 부부간 관계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Stierlin(1981)의 연구를 기초로 이론을 제시한 Napier는 개인의 원가족 역동성이 다시 그들의 결혼 역동성의 기틀이 되는 이유는 부부 각자가 자신의 원가족에서 하던 가족 상호작용을 부부의 결혼관계에 다시 통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부부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자라온 가족에서 분화된 자아를 형성하여야 한다. 즉, 부부가 되기 전에 원가족으로부터 분리된 '자아'를 형성하는 것은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기초라 할 수 있으며(김영희 외, 2005), Bowen(1978)은 이를 원가족과의 분화라고 칭하였다. 특히 가족 간의 유대가 중시되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보편적인 우리나라의 경우는 개인 중심의 서구사회에 비해 자녀에게 미치는 원가족의 영향력이 더 클 수밖에 없어 원가족에서의 경험이 결혼생활의 역동성에 매우 중요하다(정문자, 2000).

부부관계에 영향을 주는 원가족 분화는 주로 정서적 단절과 정서적 분화로 나누어 연구되고 있다(전연진, 2002;

Skowron, 1995). 자신의 원가족과 정서적 단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아분화수준이 낮으며, 결혼생활에서 스트레스와 갈등을 많이 경험하여 부부간에 우울이나 불안 등 여러 가지 역기능적 행동을 일으키게 되고(금은순, 1996), 이러한 패턴은 그들이 맺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영향을 미친다(전연진, 2002). 반면 원가족으로부터 분화가 잘 된 개인은 타인과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Lim & Jennings, 1996), 확고한 자율성과 독립성이 유지되어 정체감을 잃지 않고, 배우자와 정서적으로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Bowen, 1978). 즉, 자아분화는 정신건강과 연결되어 친밀한 부부관계를 유지시키며 건강한 결혼생활을 영위하게 한다.

원가족 분화경험이 부부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내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단절이 낮을수록 부부의 친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미라, 2001). Mee-Gaik(1991)도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간의 친밀도는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자아분화가 높은 사람들은 의미 있는 타인간의 관계에서 정서적 친밀감을 누리고 결혼생활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만족도에 대한 자아분화의 영향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혼남성과 여성의 경우 원가족 분화경험이 부부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아정체감 형성은 원가족으로부터의 분화경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은미, 최명선, 2008). 원가족으로부터 자아분화가 이루어진 개인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에 가치를 두면서도 자아를 버리지 않고,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만 그러한 인정을 받기 위해 자기의 신념 및 가치와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Hartman, 1981). 반면 원가족으로부터 자아분화를 이루지 못한 개인은 유사자아(pseudo-self)를 발달시키므로, 타인 중심으로 자신을 형성해 나간다. 진정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타인의 사랑과 인정을 획득하는데 더 높은 가치를 두게 되어 타인의 공격이나 비난을 회피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비한다(변외진, 김춘경, 2006).

자아정체감과 부부친밀감과의 관련성을 논의한 연구를 살펴보면, 자아정체감이 부부친밀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라, 2001; 우명순, 2007), 건강한 부부

관계를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한 개인 혹은 배우자의 건강한 자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순기, 2001; 이경희, 1998). 진정한 의미의 친밀감은 통합된 정체감, 즉 자아정체감을 미리 성취하지 않으면 획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영희 외, 2005). 한편 정체감이 높은 사람, 즉 자아를 확립한 사람일수록 친밀감이 높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감을 갖고 자신의 행동에 자신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아청, 1998). 이처럼 자아정체감은 타인과 의미 있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결정적인 발달단계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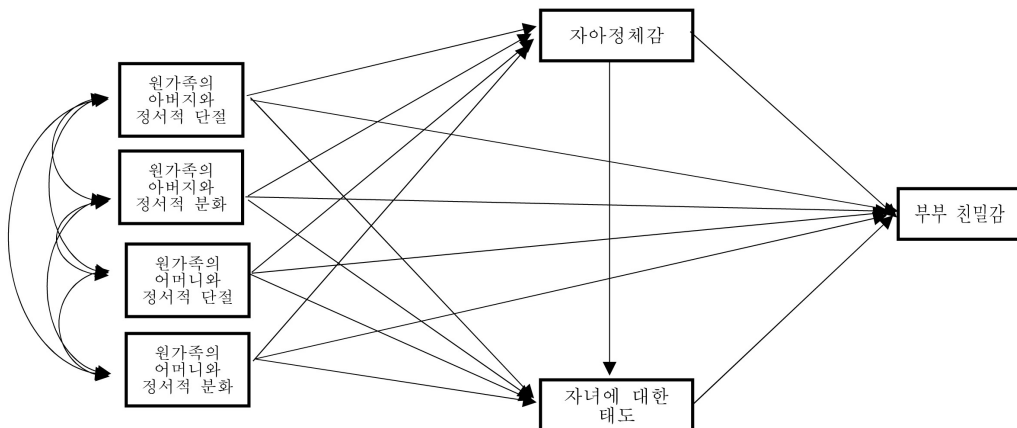
자아정체감을 통해 얻어진 자기 확신과 타인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이 높은 부모들은 유아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Cox, Owen, Lewis, & Henderson, 1989), 부모로서의 역할에 자신감과 통제력을 갖고 있었다(Frank, Jacobson, Hole, Justkowski, & Huyck, 1986). 또한 높은 자아정체감을 갖고 있는 남편은 아내가 필요로 하는 안정성을 제공하고, 부부관계와 자녀 양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아청, 1998).

또한 가족 내의 정서적 상호 작용 방식이 세대간에 전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Bowen, 1978). 부모가 원가족에서 자신의 부모와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한 부모-자녀간 상호작용방식은 현재의 부모-자녀 상호작용 방식에 세대간 전수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전연진, 2002). 이처럼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는 부모 자신의 원가족으로부터 세대전이 과정을 거치며, 원가족에서 낮은 수준의 분화 경험을 할수록 부모는 자녀와 갈등적 관계를 맺게 된다(유은희, 진춘애, 1995). 또한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거나(Davies & Cummings, 1994; Fauber, Forehand, Thomas, &

Wierson, 1990), 허용 또는 과보호하고(정문자, 1996), 자녀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부모 자신이 원가족에서 경험한 자녀에 대한 태도 유형을 자신이 형성한 가족 내에서 세대간 전수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장선웅, 2007; 전연진, 2002).

이처럼 가족체계를 직선적 관계가 아닌 상호교환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 또한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모들은 아동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Bell, 1968).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지는 자녀에 대한 태도는 부부관계가 만족스러울 때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고, 부부관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Patterson, 1984). 부부 불화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보고를 토대로 Harrist와 Ainsle(1998)은 부부관계에 자녀가 매개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부모와 자녀관계가 부부의 불화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태도로 반응할수록 부부의 친밀감은 감소하는 반면,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지각할수록 부부의 친밀감은 증가한다(O'Brien & Peyton, 2002). 이처럼 가족체계 내에서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자녀는 부모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가족의 분화경험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박민지, 2005; 양진선, 2004; 우명순, 2007), 차이를 보이지 않은 연구도 있었다(Bowen, 1976; Mee-Gaik, 1991; Vayghn, 1989). 한편 여성은 원가족의 부모와 정서적 분화가 부부친밀감에 더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남성은 정서적 단절이 부부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림 1〉 원가족 분화경험과 자아정체감, 자녀에 대한 태도 및 부부친밀감에 대한 이론적 경로모델

(Christensen & Olson, 2002). 또한 원가족의 자아분화 경험 이 성인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도 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김순기, 2001). 그러나 원가족의 자아분화 경험이 자아정체감을 통해 자녀에 대한 태도나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성에 따라 살펴 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해 세워진 이론적 모델을 통해 원가족 분화경험과 자아정체감 및 자녀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기혼남녀의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성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기혼남녀의 결혼생활을 강화하는 방안을 탐색해보고, 부모교육 프로그램, 아동·가족 상담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원가족 분화경험이 자아정체감 및 자녀에 대한 태도와 상호작용하여 기혼남녀의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원가족 분화경험의 하위 요인인 원가족의 아버지와 정서적 단절, 원가족의 아버지와 정서적 분화, 원가족의 어머니와 정서적 단절, 원가족의 어머니와 정서적 분화와 자아정체감 및 자녀에 대한 태도가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경로를 성에 따라 알아보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가설적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 Ⅱ.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첫 자녀가 아동기에 있는 결혼 기간 14년 이하의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 오창읍의 유아교육기관, 회사 등을 통해 자기 기입식 질문지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1,0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664부(회수율: 66.4%)가 회수되었으나,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된 자료와 한부모 가족, 결혼 15년 이상 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535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 2. 측정도구

#### 1) 원가족 분화경험

원가족 분화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연진(2002)이 개발한 원가족 분화경험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한 개인이 결혼, 공부, 취직 등의 이유로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기 이

전까지 경험한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이다. 총 52문항으로 정서적 단절, 삼각화, 정서적 분화의 3개 하위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원가족의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분화정도를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와의 관련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삼각화 문항을 제외하고, 정서적 단절과 정서적 분리 2개의 하위척도를 사용하여 36문항으로 원가족 분화경험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원가족의 아버지와 정서적 단절 .93, 원가족의 아버지와 정서적 분화 .74, 원가족의 어머니와 정서적 단절 .92, 원가족의 어머니와 정서적 분화 .73으로 나타났다.

#### 2)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은 Dignan(1965)의 자아정체감 척도(Dignan Ego-identity Scale)를 서봉연(1975)이 번안한 것을 토대로 박아청(1996)이 재구성 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를 이경혜(1997)가 타당도를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이다.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5로 나타났다.

#### 3) 자녀에 대한 태도

자녀에 대한 태도는 Hudson(1992)이 개발한 Index of Parental Attitudes(IP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함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자녀에 대한 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함을 의미한다. 총 25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91로 나타났다.

#### 4) 부부친밀감

부부친밀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경희(1998)가 제작한 부부 친밀감 척도 15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세 가지 하위영역, 즉 인지적, 정서적, 성적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91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2.0과 AMOS 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조사자의 일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성	남자	261(48.8)	가족 형태	핵가족	486(90.8)
	여자	274(51.2)		대가족	49(9.2)
	계	535(100.0)		계	535(100.0)
연령	30세 이하	40(7.5)	월평균 수입	200만원 미만	60(11.3)
	30 ~ 35세	221(41.3)		200 ~ 300만원	152(28.6)
	36 ~ 40세	226(42.2)		300 ~ 400만원	154(28.9)
	41세 이상	48(9.0)		400만원 이상	166(32.1)
	계	535(100.0)		계	535(100.0)
학력	고졸 이하	145(27.1)	종교	불교	84(15.7)
	대졸 이상	390(72.9)		기독교	133(24.9)
	계	535(100.0)		천주교	39(7.3)
		무교/기타		278(52.1)	
계	535(100.0)	계		534(100.0)	
직업	관리/전문직	84(15.9)	결혼 기간	7년 이하	252(47.1)
	행정/사무직	167(31.6)		8년~14년	283(52.9)
	생산/기술/노무직	141(26.7)		계	535(100.0)
	주부/무직	137(25.9)			
	계	529(100.0)			
교제 기간	12개월 이하	214(40.5)	자녀수	1명 이하	108(20.3)
	13개월~36개월	205(38.8)		2명	364(68.3)
	37개월 이상	109(20.6)		3명 이상	61(11.4)
	계	528(100.0)		계	533(100.0)

반적 배경에 따른 빈도와 백분율, 일반적 배경에 따라 기혼 남녀의 원가족 분화경험, 자아정체감, 자녀에 대한 태도, 부부친밀감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F*-test, Tukey 사후검증을 하였다. 질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위해 요인분석과 Cronbach의 내적 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고, 각 하위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사용하였으며, 제안된 이론적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AMOS 5.0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 2. 원가족 분화경험과 자아정체감, 자녀에 대한 태도가 기혼 남녀의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성에 따른 경로모델

성에 따라 부부 친밀감과 관련된 원가족 분화경험과 자아정체감, 자녀에 대한 태도의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와 평균, 표준편차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 변인들의 유의한 상관관계수는 남성은 .13에서 .53, 여성은 .13에서 .67로 나타났으며, 변수들의 관련성은 예측된 방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변인들의 분산팽창 계수인 VIF 값을 살펴보면 남성은 1.26에서 2.18, 여성은 1.23에서 2.27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델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남성의 경우  $\chi^2 = 3.00(p > .05, df = 2)$ ,  $GFI = .99$ ,  $AGFI = .95$ ,  $NFI = .99$ ,  $CFI = .99$  로 모두 .90 이상이며  $RMSEA = .04$ 로 .05보다 작으므로 자료가 모델을 잘 지지해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chi^2 = 4.77(p > .05, df = 4)$ ,  $GFI = .99$ ,  $AGFI = .97$ ,  $NFI = .99$ ,  $CFI = .99$  로 모두 .90 이상이며  $RMSEA = .02$ 로 .05보다 작게 나타나 모델의 적합성을 보여주었다.

연구문제를 기초로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두 집단에 대한 경로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경로모형 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 원가족 분화경험과 자아정체감, 자녀에 대한 태도 및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으며 기혼남성과 기혼여성 간에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해 세워진 이론적 모델을 통해 원가족 분화경험과 자아정체감 및 자녀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기혼남녀의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성에 따라 살펴보고 기혼남녀의 결혼생활을 강화하는 방안을 탐색해보고, 부모교육 프로그램, 아동·가족 상담현

〈표 2〉 원가족 분화경험과 자아정체감, 자녀에 대한 태도 및 부부친밀감간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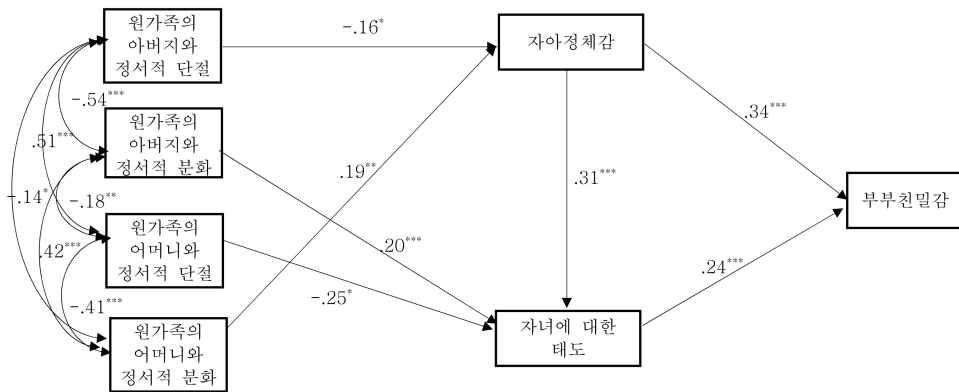
※남(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53*** (-.67***)						
③	.50*** (.41***)	-.19** (-.30***)					
④	-.13* (-.17**)	.42*** (.36***)	-.41*** (-.60***)				
⑤	-.23*** (-.27***)	.20** (.30***)	-.26*** (-.36***)	.26*** (.27***)			
⑥	-.30*** (-.21**)	.31*** (.16*)	-.39*** (-.30***)	.30*** (.18**)	.43*** (.41***)		
⑦	-.12 (-.13*)	.07 (.21***)	-.24*** (-.21***)	.14* (.21**)	.42*** (.29***)	.36*** (.41***)	
평균	1.90 (1.97)	3.15 (3.12)	1.54 (1.63)	3.67 (3.67)	3.63 (3.47)	4.10 (3.89)	3.67 (3.51)
표준 편차	.72 (.78)	.69 (.74)	.57 (.61)	.70 (.69)	.49 (.46)	.37 (.47)	.61 (.69)

① 원가족의 아버지와 정서적 단절, ② 원가족의 아버지와 정서적 분화, ③ 원가족의 어머니와 정서적 단절, ④ 원가족의 어머니와 정서적 분화, ⑤ 자아정체감, ⑥ 자녀에 대한 태도, ⑦ 부부친밀감  
\* $p < .05$ , \*\* $p < .01$ , \*\*\* $p < .001$

〈표 3〉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	df	GFI	AGFI	NFI	CFI	RMSEA
남성	3.00	2	.99	.95	.99	.99	.04
여성	4.77	4	.99	.97	.99	.99	.02



\* $p < .05$ , \*\* $p < .01$ , \*\*\* $p < .001$   
모든 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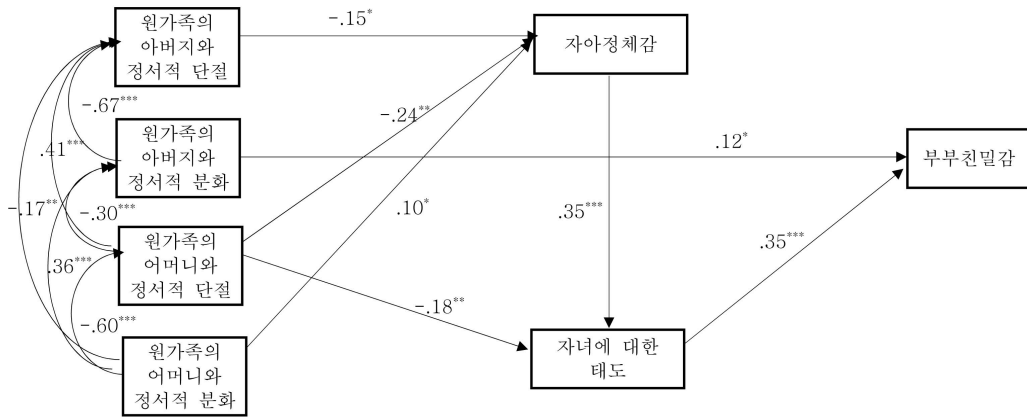
$\chi^2 = 3.00(p > .05, df = 2)$

〈그림 2〉 기혼남성의 원가족 분화경험과 자아정체감, 자녀에 대한 태도 및 부부친밀감에 대한 경로모형

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과 여성 모두 원가족 분화경험이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분화가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변외진, 김춘경, 2006)와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자신의 원가족으로부터 분리개별화가 잘 될수록, 심리적 독립수준이 높을수록 자



\* $p < .05$ , \*\* $p < .01$ , \*\*\* $p < .001$   
 모든 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임.

$\chi^2 = 4.77(p > .05, df = 4)$

〈그림 3〉 기혼여성의 원가족 분화경험과 자아정체감, 자녀에 대한 태도 및 부부친밀감에 대한 경로모델

아정체감이 높다는 연구(문은미, 최명선, 2008)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정서적 단절과 자아정체감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정서적 분화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원가족과의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많이 할수록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타인과 친근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확고한 정체감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원가족 분화경험이 남성과 여성 모두 자녀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가족에서의 정서적 단절을 많이 경험했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정서적 분화 경험을 많이 했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는 연구(문희선, 1995)와 일치하며, 부모의 원가족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는 자녀와 역기능적으로 의사소통한다는 연구결과(전연진, 2002)와 맥을 같이한다. 특히 남성의 경우 원가족의 아버지와 정서적 분화경험이 자녀와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원가족으로부터 미분화된 관계양식과 역기능적인 행동 양식을 동성의 부모로부터 모방하게 된다는 연구결과(Kissee, Murphy, Bonner, & Murley, 2000)를 통해 동일시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자기 분화가 남성의 경우에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와 더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에 정서적 단절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조소희, 2008)와 맥을 같이 한다. 원가족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친밀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더 애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자녀를 키우며 적극적으로 자녀양육에 참여하며 합리적으로 자녀를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주, 1996). 또한 이

는 어머니의 경우도 원가족으로부터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분리되어 적절한 친밀감과 자율성을 이룬 어머니가 정서적 단절을 경험한 어머니보다 자녀양육행동에 있어서 온정·수용적이고, 덜 거부, 제재적인 것으로 자녀에게 지각되었다는 연구결과(정문자, 전연진, 김진이, 2004)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부모교육프로그램에서 자녀와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원가족과의 정서적 관계를 성찰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 분화경험의 하위요인은 여성의 경우 원가족의 아버지와 정서적 분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기혼여성의 원가족 분화경험과 부부친밀감을 살펴본 연구(김미라, 2001)에서 기혼여성의 자아분화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단절이 낮을수록 부부 친밀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원가족에서의 정서적 건강변인이 다른 사회 인구학적 변인보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 결혼적응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결과(Lane, Wilcoxon, & Cecil, 1988), 원가족 경험이 높을수록 결혼의 적응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김형정(1999)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딸이 부모와의 정서적 단절을 적게 경험할수록 결혼만족도와 결혼 안정성이 높다는 전춘애(1994)의 연구와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 자아분화 정도와 결혼적응도,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Mee-Gaik, 1991; 조은경, 2001, 한영숙, 2007)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아내의 경우 원가족에서의 정서적 분위기나 정서적 경험이 자녀가 성장한 후에도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며, 남편과의 관계

〈표 4〉 기혼남녀의 원가족 분화경험과 자아정체감, 자녀에 대한 태도 및 부부친밀감과 관련된 변인의 직접·간접효과

성	독립 변인	종속 변인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성	독립 변인	종속 변인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남성	원가족의 아버지와 정서적 단절	자아정체감	-.16	·	-.16	여성	원가족의 아버지와 정서적 단절	자아정체감	-.15	·	-.15	
		자녀에 대한 태도	·	-.05	-.05			원가족의 아버지와 정서적 단절	자녀에 대한 태도	·	-.05	-.05
		부부친밀감	·	-.06	-.06				원가족의 아버지와 정서적 단절	부부친밀감	·	-.04
	원가족의 아버지와 정서적 분화	자녀에 대한 태도	.20	·	.20		원가족의 아버지와 정서적 분화			부부친밀감	.12	·
		부부친밀감	·	.05	.05			원가족의 아버지와 정서적 분화		자아정체감	-.24	·
	원가족의 어머니와 정서적 단절	자녀에 대한 태도	-.25	·	-.25		원가족의 어머니와 정서적 단절		자녀에 대한 태도	-.18	·	-.18
		부부친밀감	·	-.10	-.10			원가족의 어머니와 정서적 단절	부부친밀감	·	-.17	-.17
	원가족의 어머니와 정서적 분화	자아정체감	.19	·	.19		원가족의 어머니와 정서적 분화		자아정체감	.10	·	.10
		자녀에 대한 태도	·	.06	.06			원가족의 어머니와 정서적 분화	자녀에 대한 태도	·	.04	.04
		부부친밀감	·	.08	.08				원가족의 어머니와 정서적 분화	부부친밀감	·	.02
	자아정체감	자녀에 대한 태도	.31	·	.31		자아정체감	자녀에 대한 태도		.35	·	.35
		부부친밀감	.34	.07	.41			자아정체감	부부친밀감	.35	·	.35
자녀에 대한 태도	부부친밀감	.24	·	.24	자녀에 대한 태도	부부친밀감	.35		·	.35		

로 전이되어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원가족의 아버지와 정서적 분화를 잘 한 사람은 원가족의 아버지와 자신의 남편을 동일시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원가족의 경험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성차를 인식하고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함을 시사한다.

넷째, 남성과 여성 모두 자아정체감이 자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연구와 일치한다(Cox et al., 1989; Frank et al., 1986). 부모의 자아정체감이 높으면 자녀에게 보다 긍정적이고 수용적으로 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자아정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가족에서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현재 부모자녀 관계에서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섯째, 남성은 자아정체감이 부부친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의 경우 자아정체감이 부부친밀감에 직

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남성은 원가족에서의 분화경험이 자아정체감을 통하여 부부친밀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성의 경우 자아정체감을 통하여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자아정체감은 남성의 부부친밀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에게는 자아정체감이 부부친밀감에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한 우명순(2007)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인 부부관계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여성의 경우 자신의 자아보다는 가장인 배우자 위주의 관계형성에 익숙하고 안정감을 가지며, 남편의존의 부부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아정체감이 부부친밀감에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남성과 여성 모두 원가족에서의 분화경험이 자녀에 대한 태도를 통하여 부부친밀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경우는 원가족의 아버지와 정서적 분화와 원가족의 어머니와 정서적 단절의 경험이 모



두 부부친밀감에 매개역할을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원가족의 어머니와 정서적 단절만이 부부친밀감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우 사회적으로 자녀양육과 같은 표현적 역할이 남성에 비해 더 강하게 사회화되어 왔고, 원가족에서도 그러한 상호작용 방식을 학습하였기 때문에 자녀의 성과 관계없이 자신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아들과 딸에 대한 양육행동에 동일하게 전수된 것으로 볼 있다(정문자 외, 2004). 특히 여성의 경우는 미분화된 자아로 인해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들은 부모와 정서적으로 불안정함에 단절을 시도하게 된다. 또한 결혼한 후에도 부모와의 정서적 단절이 부부간에 영향을 미쳐 부부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기제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결혼만족도가 감소하게 된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한다(김남진, 2005; 김명자, 고현선, 1994; 한미향, 1999).

일곱째, 자녀에 대한 태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 본 결과 여성의 경우 자녀에 대한 태도가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이고, 자녀에 대해 스트레스를 덜 받을수록 부부의 친밀도가 높아진다는 연구(O'Brien & Peyton, 2002)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자녀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수록 부부관계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Cox, Paley, Payne, & Burchinal, 1999; Erel & Burman, 1995)와 맥을 같이한다. 한편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가 자녀에 대한 태도가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양육에 대한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가 부부관계에 더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는 서로 다른 체계로 볼 수 없으며, 하나의 상호작용하는 체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기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방식 등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원가족 분화경험과 자아정체감, 자녀에 대한 태도가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경로가 성에 따라 부분적인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어 원가족 분화경험과 자아정체감, 자녀에 대한 태도가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성에 따라 살펴본 것에 타당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원가족에서의 부모와의 경험은 현재의 가족생활 전체에 세대전이의 과정을 통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원가족의 영향력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남성은 자아정체감과 자녀에 대한 태도가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의 경우는 자녀에 대한 태도만이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

화의 영향으로 인해 어떤 역할을 수행하든지 남성은 여성보다 자신감과 함께 정체감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우리 사회가 자녀 양육에 대한 많은 부분을 여성에게 지우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와의 갈등이 있거나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 부부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부부친밀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여러 사회적인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남편과 아내의 자아분화수준에 따라 부부갈등이나 결혼생활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를 입증해주는 결과이며, 건강한 부부관계를 증진시키는 교육프로그램에는 성차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제안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기혼남성의 자아정체감보다 기혼여성의 자아정체감이 낮으며, 기혼여성의 경우 자아정체감이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자아정체감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탐색해보고, 기혼여성의 자아정체감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혼남녀의 원가족 분화경험이 부부관계와 현재의 부모-자녀관계,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가족의 경험이 인생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원가족 경험을 매개하는 요인을 탐색하여 이 요인들의 상호관계가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과 부부친밀감을 하위변인으로 나누지 않고 단일 차원으로 연구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과 부부친밀감간의 하위요인간의 관련성을 다차원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혼여성과 남성을 독립적으로 살펴 보았다. 후속연구에서는 부부를 쌍으로 연구하여 원가족 분화경험의 차이가 부부친밀감이나 부모-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 ■ 참고문헌

- 김은순(1996). 자아분화수준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남진(2005). 부부의 자아분화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및 안정성.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명자, 고현선(1994). 부부의 자기분화가 부부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 9(1), 3-20.
- 김미라(2001). 부부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순기(2001). 기혼남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결혼 후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43-64.
- 김현정(1999). 원가족 경험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청주시 결혼초기부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주(1996).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 및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은미, 최명선(2008). 부모화 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0(4), 1063-1085.
- 문희선(1995). 어머니의 자아분화 수준과 자녀양육 태도의 관계-Bowen의 이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민지(2005). 부부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 분화수준과 가족규칙 및 부부의사소통.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아청(1996). 한국형 자아-정체감검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5(1), 140-162.
- 박아청(1998).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신뢰감과의 관계. **아동교육**, 7(1), 217-220.
- 변의진, 김춘경(2006). 중년여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자아분화, 내면체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4(12), 155-165.
- 양진선(2004). 부부친밀감과 자아존중감 및 원가족 건강성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우명순(2007). 중년기 기혼남녀의 부부친밀감에 관한 연구-자아정체감과 부부의사소통, 양성평등의식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유은희, 전춘애(1995). 모의 자아분화수준과 모자간의 갈등이 청년기 자녀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3, 137-153.
- 이경혜(1997).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관련 연구경향과 전망에 관한 일고찰. **아동교육**, 6(2), 143-153.
- 이경희(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선웅(2007). 원가족 경험이 부부친밀감과 자녀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연진(2002). 삼세대 가족관계 경험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전춘애(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정문자(2000). 한국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Satir 치료모델의 적용. **한국가족치료학회지**, 8(2), 65-86.
- 정문자, 전연진, 김진이(2004). 부모의 원가족 경험과 자녀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2), 133-150.
- 정현숙(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191-204.
- 정현숙, 서동인(1994).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가족의 부부문제.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제1권.
- 조소희(2008). 기혼남녀의 원가족 경험과 자기분화가 핵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은경(2001).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과 갈등 대처 행동 및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미향(1999). 부부의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방안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영숙(2007). 부부의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259-272.
- Bell, R. Q.(1968). A reinterpretation of the direction of effects in studies of socialization. *Psychological Review*, 75, 81-95.
- Bowen, M.(1976). Therap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 J. Guerin, Jr.(Ed.), *Family therapy theory and practice* (pp.42-90). New York: Garden.
- Bowen, M.(1978). *On the differentiation of self: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Brown, J. H., & Brown, C. S.(2005) *Marital therapy: Concepts and skills for effective practice*. 부부치료-효과적 임상을 위한 개념과 기술. 김영희, 최규련, 홍숙자(공역). 서울: 박학사. (2002년 원저 발간)
- Carter, B., & McGoldrick, M.(1996) *The changing family life cycle: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가족생활

- 주기와 가족치료. 정문자(역).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89년 원저발간)
- Christensen, U. R., & Olson, P.(2002). Secular variation in numerical geodynamo models with lateral variations of boundary heat flow. *Physics of the Earth and Planetary Interiors*, 138, 39-54.
- Cox, M. J., Owen M. T., Lewis, J. M., & Henderson, V.(1989). Marriage, adult adjustment, and early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0, 1015-1024.
- Cox, M. J., Paley, B., Payne, C. C., & Burchinal, M.(1999).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Marital conflict and withdrawal and parent-infant interactions. In M. Cox & J. Brooks-Gunn(Eds.), *Conflict and closeness in families: Consequences for children and youth development (pp. 87-104)*. Mahwah, NJ: Erlbaum.
- Davies, P. T., & Cummings, E. M.(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Erel, O., & Burman, B.(1995). Interrelatedness of marital relations and parent-child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8, 108-132.
- Fauber, R. L., Forehand, R., Thomas, A. M., & Wierson, M.(1990). A mediational model of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adolescent adjustment in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The role of disrupted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1, 1112-1123.
- Frank, S., Jacobson, S., Hole, C. B. M., Justkowski, R., & Huyck, M.(1986). Psychological predictors of parents' sense of confidence and control and self-versus child-focused gratific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348-355.
- Hartman, A.(1981). Bowen family system: Theory and practice. In E. R. Tolson & W. J. Reid(Eds.), *Models of family treatmen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arrist, A. W., & Ainslie, R. C.(1998). Paren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Family Issue*, 19, 140-163.
- Hudson, W. W.(1992). *The WALMYR assessment scales scoring Manual*. Tempe, AZ: WALMYR Publishing Co.
- Kissee, J. E., Murphy, S. D., Bonner, G. L., & Murley, L. C.(2000). Effects of family origin dynamics on college freshmen. *College Student Journal*, 34(2), 172-181.
- Lane, A. R., Wilcoxon, A., & Cecil, J. H.(1988). Family of origin experiences and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Considerations for marital and family therapists. *Family Therapy*, 15, 23-29.
- Lim, M-G., & Jennings, G. H.(1996). Marital satisfaction of healthy differentiated and undifferentiated couples. *Family Journal*, 4(4), 308-315.
- Mee-Gaik, N. G.(1991). Family of origin differenti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in health like, healthy unlike, unhealthy like, and unhealthy unlike Coup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 Napier, A. Y.(1988). *The fragile bond: In search of an equal, intimate, and enduring marriage*. New York: Harper & Row.
- O'Brien, M., & Peyton, V.(2002). Parenting attitudes and marital intimacy: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6(2), 118-127.
- Patterson, C. H.(1984). Empathy, warmth, and genuineness in psychotherapy: A review of reviews. *Psychotherapy*, 21, 413-438.
- Skowron, E. A.(1995). The 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 Construct validation and test of Bowen theo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State University at Albany.
- Stierlin, H.(1981). *Separating parents and adolescents: Individuation in the family*. New York: Jason Aronson.
- Vayghn, K. L.(1989). Differentiation of self : A validation study. Master Dissertation Abstracts, Texas Woman's University.

접 수 일 : 2010년 5월 1일

심사시작일 : 2010년 5월 7일

게재확정일 : 2010년 8월 18일